

# 화물차 불법증차 근절법, 국무회의 의결

### 불법증차 운송사업자 5년간 시장 격리... 정동영 의원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될 것"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정 의원은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의 통과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기

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사업금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법망을 피해 다니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

특수용도형 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여 공급제한차량으로 불

법 증차한 후 시장에 공급하는 등의 부차용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현황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전국적으로 3만 5천대에서 4만 5천대의 불법증차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폐차 확인시스템 구축, 불법증차 의심차량 전수조사 실

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운송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 주 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변경허가를 받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매년 1조 7천억 원 가량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역시 상당 부분이 불법증차된 차량에 지원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의 통과로 화물운송시장이 정상화되고, 국민세금의 낭비를 막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도 해양수산 부서 확대 개편해야"



전북도 미래수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관련 부서 확대 개편 문제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훈열 의원(부안·시진)은 13일 제35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의 해양수산정책의 비중이 낮고 그에 따른 조직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꼬집었다.

현재 전북도는 해양관광을 비롯한 해양수산정책을 농축수산물식품국에 있는 1개 과 4개 팀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물류 업무는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새만금 개발지역에 대한 해양수산관련 업무는 새만금 추진지원단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등 전북도 해양수산조직은 이원화 혹은 축소되어 그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 하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충남과 전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해양수산국'을 통해 해양수산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북도는 동해안발전본부, 강원도는 환동해본부 등 조직을 통해 수산정책을 비롯한 항만물류 업무를 일원화하여 미래수산업 육성기반을 강화해 해양수산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최훈열 의원은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차원의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과제이다"며 "전북도 해양수산정책을 위한 전담 조직체계를 갖춰놓은 상태에 전통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산물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등 경쟁력 있는 미래해양수산 육성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정화운반선 운영횟수는 46일에서 86일에 불과한 전북도 정화운반선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화운반선의 폐선과 함께 인력 재배치 방안에 대한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 국회의원 '논란의 패딩' 체육 유망주 후원금으로

국회의원에게 제공되었던 평창올림픽 기념 패딩과 관련해, 후원금으로 대신 전달하는 후속조치가 미루리 됐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대한체육회를 통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공되었던 패딩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13일 법조문제가 없다하더라도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생각하여 반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 밝혔고, 위원들과 논의 끝에 스포츠 유망주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패딩 제작비용을 각출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후원금계좌로 전달, 장애인체육회는 동계 스포츠 유망주들에게 스노우보드 등 각종 장비 구입하여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현물로 사전에 반납을 하여 이번 후원금 전달에는 동참하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비록 논란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스포츠 꿈나무 육성에 쓰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미래의 경찰 주역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8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미래 경찰 주역들인 초급 간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MB 오늘 검찰 포토라인... 다섯번째 전직 대통령

### 범죄 사실 많고 혐의 부인... 장시간 조사 전방

100억원대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검찰의 본격적인 수싸움이 오늘로 다가왔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30분 검찰 출석이 예정된 상태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24일 퇴임 이후 1844만 만에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통보한 날짜인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중용된 바 있는 강훈 변호사 등 대응 전략 회의를 진행했던 이들이 출석 과정도 함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관련 고소·고발 건을 접수 이후 약 5개월간 수사를 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의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다스 실소유주 추적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포착됐고, 그 결과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혐의, 다스를 통한 수백억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이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리고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의 배경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는 본인과 무관하고 각 뇌물수수 혐의 역시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 진술을 내놓을 거라는 관측이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부인해 온 그간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범죄 사실이 많고,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사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지난해 3월21일 검찰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조사 확인 시간을 포함해 출석 약 22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뉴스

### 이춘석 의원, 성당-용안농로 확포장 특교 12억 확보

성당면 장선리와 용안면 덕용리를 잇는 경작로가 확포장됨에 따라 그간 농로가 좁아 농사와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던 성당 및 용안 주민들의 영농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13일 성당면 경작로의 확·포장공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2억을 확보했다고 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경작로가 위치한 인근 지역은 1995년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간으로서 기계화경작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기존 경작로의 폭이 너무 협소하다보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겪는 등 영농활동에 지장이 많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확포장 공사는 기존에 3미터였던 도로 폭을 3미터 더 확장하는 공사로 공사구간은 약 2km 정도 되며, 총사업비는 약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총 6미터의 도로 폭이 확보됨으로써 차량은 물론 농기계의 교행이 원활해져 영농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농산물 생산지와 가공 유통시설 간의 이동이 신속해져 생산성 향상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건 지식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홍보대사 류수영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단체)